

보도시점 (온라인) 2025. 9. 9.(화) 12:00
(지면) 2025. 9. 10.(수) 조간

사물주소 적용해 세종시 버스정류장 위치 오류 없앤다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버스정류장 내 시범 적용 후 전국 확대 예정
- 위치정확도 확보로 승하차 정보 등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가능
- 지도 서비스 기업의 위치 오류 정비 비용 절감 기대

〈 버스정류장 위치 오류로 인한 불편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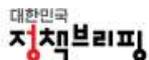
- ◆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사한 ㄱ씨. 스마트폰 지도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탑승하려는 버스의 도착시간을 확인하고 기다리던 중 40m 전방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버스정류장 위치가 달라진 것에 무척 당황스러웠다.
- 앞으로는 지도 서비스에서 거리와 위치 오차 없이 버스정류장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도 오류 수정 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세종시 버스 정보시스템(BIS*) 데이터베이스(DB)에 도로명주소 기반의 ‘버스정류장 사물주소’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 Bus Information System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지도(구글 등)에서 확인되는 위치정보(좌표)를 그대로 사용해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제공해 왔다.
- 그러나 인터넷 지도에서 취득한 위치정보는 정확도가 매우 낮고, 데이터의 통일성 결여와 비표준화로 인해 사용자 간 연계 활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또한, 각종 도로 공사 등으로 버스정류장이 이전·폐지되더라도, 신속한 데이터 반영이 되지 않아 지도에서 고스란히 위치 오류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누구나 표준화된 위치정보를 활용하고, 신속한 갱신이 가능하도록 전국 14만 6천여 개 버스정류장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왔다.
 - * (표시 방법 예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버스정류장
-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에 위치하는 1,546개 버스정류장 중에 표지판이 설치된 1,047개 정류장에 사물주소를 우선 적용해 위치 오류를 개선했다.
 - 먼저 행정안전부는 LX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위성사진과 거리 보기(road view) 영상 확인, ▲현장 조사로 지도 서비스의 위치 정확도를 높였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사물주소가 적용된 버스정류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내 ▲노선별 정류장 거리 조정, ▲버스 도착시간 재산정 등의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 다만, 도로 공사, 이용자 증감 등의 이유로 이전, 신설 또는 폐지된 499개 버스정류장은 표지판 설치 등 시설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사물주소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사물주소가 적용된 버스정류장 데이터를 지도 서비스 기업에 제공해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 오류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노선별 승하차 기록, 배차간격 조정, 버스 혼잡도 완화와 같은 버스 정책의 정확한 통계 작성과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5개 교통카드사*에도 개선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티머니, 마이비, 한체이시스, 이동의 즐거움(EZL), IM유페이

- 이번 조치로 지도 서비스 기업별로 지도 정확도 개선을 위해 실시해 왔던 현장 확인 절차 등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천흥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국장은 “이번 버스정류장 사물주소 적용은 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류장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안전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교통 정책 품질도 함께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희건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장은 “주소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산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경제적 부담 또한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책임자	과 장	박희건 (044-205-3551)
		담당자	사무관	엄경철 (044-205-3546)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과	책임자	과 장	조은강 (044-300-7910)
		담당자	주무관	김성환 (044-300-7924)



참고1

BIS 내 사물주소 적용을 통한 위치 오류 정비 사례

정비 전 (세종시BIS데이터) → 후 (사물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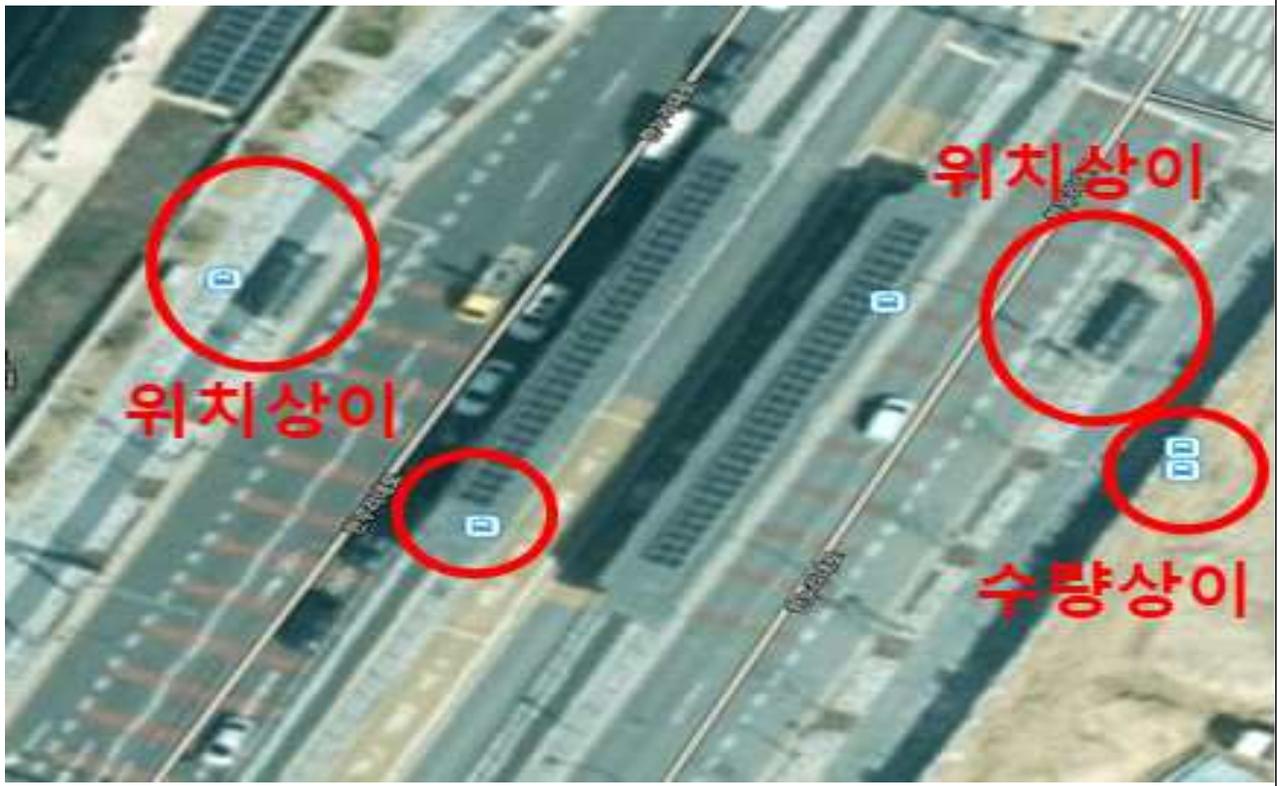
정비 전 (세종시BIS데이터) → 후 (사물주소)



참고2

민간 지도 서비스 버스정류장 위치 오류 사례

A사 지도 서비스



B사 지도 서비스



□ **추진 배경**

- 건물 외 다중이용시설 및 장소 등에 대한 정확한 위치 표기 방법이 없어 국민 안전 확보에 한계 및 생활 편의시설 이용에 제약
- 위치안내가 필요한 생활·안전 밀접 사물(장소) 대상, 위치·속성 및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물주소 부여·활용 추진

□ **사물주소의 개념**

- (개념 및 표기법)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이 아닌 시설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는 주소정보

* 기초번호란, 도로구간마다 시작 시점부터 끝지점까지 20m 간격으로 나누고, 20m마다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로 부여한 번호

① 시설물(장소)이 건물 등의 밖에 있는 경우

「행정구역명」 + 「도로명」 + 「사물번호」 + 「사물유형명」

※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108 [육교승강기](#)

② 시설물(장소)이 건물 등의 안에 있는 경우

「행정구역명」 + 「도로명」 + 「건물번호」 + 「첨표(.)」 + 「사물번호」 + 「사물유형명」

※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천길 42, [201호 비상소화장치](#)

- (대상)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물 중 ①다수가 이용하고, ②갱신체계 확보가 가능하며, ③국민안전에 우선한 사물에 주소부여 추진

< 사물주소 부여 현황 >

- ▶ '19~'24년(23종) : 육교 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 옥외 대피장소, 버스정류장, 우체통, 택시 승강장, 줄음쉼터, 지진해일 긴급 대피장소,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 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공중전화부스,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자전거 거치대, 비상 소화장치, 무더위쉼터, 민방위 대피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음식판매 자동차 허가구역
- ▶ '25년(6종) : 자동심장충격기, 무인민원발급기, 어린이보호 CCTV, 파크골프장, 보호수, 옥외소화전